

내가 일주일 내내 즐거운 이유? ... '현대불교' 가 있기 때문이죠

불자다운 삶 제시해 주는

기획연재 읽으면 공부 즐거워

■ 최장수씨의 '신행교과서'

가을비 내리던 9월 30일 경북공 인근에서 최장수씨(76)를 만났다. 1996년 3월 교장으로 정년퇴임한 후 불교에 첫 발을 내디딘 최씨는 "현대불교신문이 나를 불교의 세계로 이끌었고 지금도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 강의' 등은 나에게 경전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일깨워 주고 있다"며 현대불교예찬론을 펼친다.

최씨가 현대불교신문을 만난 것은 퇴임 후 인근 강원불교대학에 입학해 불교공부를 시작하면서다. 그때 불교계에도 신문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최씨는 각종 교계정보와 불교교리가 가득하다고 판단한 현대불교신문을 구독하기 시작했다.

"산행을 하면서 스쳐 지나던 절을 직접 다니며 불교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고요하고 정적로만 알고 있었던 불교는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너무 재미 있고 깊이가 있어요."

특히 유식화에 꼭 빠져들었다. '불교의 향기' 강좌를 시작으로 한국불교연구원의 원효학당에 이르기까지 여러 경전과 교리를 파고들었다. 최씨는 아직도 불교 공부에의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았다고 고백한다. 고회를 훌쩍 넘긴 나이도 있는 채 오늘날도 최씨는 원효학당에서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공부와 함께 본격적인 사찰 순례에 나섰다. 97년 실시된 현대불교신문사가 주최한 성지순례 테마여행에 동참한 것이 첫 번째 경험이었다. 1년 동안 매달 테마여행에 동

참해 부인과 함께 전국 사찰을 다녔다. 마지막 회향지였던 제주 범화사에서는 개근을 축하하는 감사패도 받았다.

그 다음에는 체험여행이었다. "쌍계사에서 야생차를 뛰여 마셨던 기억이 잊혀지지 않는다"는 최씨는 "주지스님으로부터 직접 듣는 절과 불교이야기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만날 수 없던 소중한 기억"이라고 전한다. 구산선원 참선기행에도 참가했다. 지금까지와 달리 선불교의 발상지와 폐사지 등을 둘러보며 책 속에서 보지 못했던 많은 것을 배웠다.

"그 이후에 현대불교에서 성지순례를 하지 않아서 너무 아쉬웠어요. 불교방송이 주최한 성지순례에도 몇 년 동참했는데 여러 사찰을 볼 수 있어서 좋았지만 기도 중심이어서 재미가 덜하더군요."

요즘 새로 찾은 순례 동지는 '여래지'이다. 마애불이나 폐사지 등을 중심으로 답사하는 여래지의 답사여행에 매주 동참한다. "15~30명 정도가 답사를 떠나는데 제일 나이 많은 동참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최씨는 건강이 허락되는 그날까지 불교공부를 하고 사찰을 참배하며 살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

"보다 전문적인 불교교육은 책으로 공부하고 불교사회 전반의 지식은 현대불교신문을 보면서 배운다"는 최장수씨는 회수(舊壽)가 되는 내년에는 삶과 불교와 한 권의 수필로 엮어 출판할 계획이다.

한 장의 신문으로 맺었던 불교와의 인연. 최장수씨의 불교공부는 앞으로도 배움의 갈망 속에 계속 될 것이다.

김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현대불교'가 10월 15일로 창간 11주년을 맞았다. 1천만 불자의 긍지를 대변하며 창간된 '현대불교'는 불교의 생활화 세계화 현대화를 지향하며 11년간 달려 왔다. 현대불교가 달리는 힘의 원천은 바로 독자들이다. 1주일간 가족끼리 둘러가며 현대불교를 읽는 독자들, 이웃에게 구독을 권유하는 독자들, 현대불교를 통해 신행정보를 얻고 나 눈운동에 동참하는 독자들... 그들이 있기에 현대불교의 11년이 있었던 것이다. 현대불교와 함께 사는 많은 독자들 가운데 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았다.



현대불교신문으로 불교계와 소통하는 대표독자 3인. 위로부터 시계방향으로 최장수, 이명숙, 김순분씨.

가부좌 틀고 앉아야 공부 되나요?

법 나누며 함께 즐거워야 공부지

■ 김순분씨의 '법보시로 안성맞춤'

"현대불교신문을 법보시하는 것은 많은 이들과 부처님발품을 공유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군부대와 교도소 등 부처님 법이 닿기 어려운 곳에 본지를 수년간 법보시 해온

김순분씨(50). 창간독자로서 11년간 본지와 꾸준히 인연을 맺어온 김씨는 으뜸가는 법보시로 '현대불교신문 보내기'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현대불교신문은 부처님과 고승의 가르침을 쉽게 풀어 주고, 다른 불자들의 신행담까지 생생하게 전해주기 때문"이라고 한다.

작은 부동산회사 대표를 맡고 있는 김씨는 본지를 통한 법보시 외에도 회사 직원 수대로 현대불교신문을 구독해서 나눠주고도 하고, 불자 고객을 만나면 1년간 신문을 보내줘 자발적인 구독을 유도하기도 한다.

이처럼 김씨의 법보시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다보니, 많을 때는 김씨의 뒤편으로 동시에 20여 곳에 보시되기도 했다.

김씨가 특히 마음을 쓰는 곳은 군부대. 3년 전 한마음선원에 함께 다니는 신도들과 의정부에 있는 군부대 장병을 위문했던 일이 계기가 됐다. 담당 군법사로부

터 "교회는 있어도 절이 없는 군부대가 많아 장병들이 절에 가고 싶어도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제대하고 나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국군장병이 불교를 접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까웠던 김씨는 군부대에 신문을 보내기 시작했다.

"법을 나눠야 한다"는 김씨의 믿음 뒤에는 깊은 불심이 자리하고 있다. 김씨는 <백암록> <무문관> 등 선서를 틔우는 대로 탐독하고, 수시로 한마음선원을 찾는다. 절을 자주 찾는 이유는 법당이 있을 때면 나쁜 마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

직업상 많은 고객과 돈을 만나는 김씨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사된 마음이다.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많이 보이지만, 김씨는 눈길조차 돌리지 않는다.

"가부좌를 틀고 앉아야만 마음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나를 힘들게 하거나, 유혹하는 것들이 모두 마음공부의 자료며, 일상이야말로 공부하는 터전이라는 가르침을 이해한 뒤로는 마음이 흔들리는 법이 없습니다."

고객의 돈을 내 돈처럼 소중히 여기고, 바른 마음가짐으로 고객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 김씨의 철칙이다.

김순분씨는 "당장의 이익을 위해 고객에게 손해를 끼치기보다는 이익도 손해도 함께 하는 길을 지향한다"며 "부처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벌고, 사회에 값지게 회향하는 것이 꿈"이라고 말한다.

이윤 추구라는 기업의 목적에 충실하면서도 이익에 탐착치 않고, 철저히 회향하는 불자 경영인의 전형을 김순분씨가 보여주시기를 기대해본다.

박익순 기자 info@buddhapia.com

신문만 잘 읽어도 '불교 박사'

신행수기는 내 삶의 채찍이죠

■ 이명숙씨의 '감동의 정보통'

흔히 '불교공부'라고 하면 한자로 된 경전을 읽는 모습만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신문을 꼼꼼히 챙겨 읽는 것만으로도 불교를 배울 수 있다고 말하는 불자이기도 하다. 바로 본지 독자 이명숙(48)씨다.

집안 대대로 사찰에 다녀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하게 된 이씨는 불교대학에서 기초교리도 배우고 매주 사찰을 찾아 기도에 매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무렵 발생한 경제 한파로 남편의 사업이 큰 타격을 입었고, 경제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적지 않은 감동을 겪어 왔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불법을 좀 더 가까이 두고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던 차에 현대불교신문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씨에게 현대불교신문은 단순한 소식지가 아니라 알찬 신행정보와 평소 만나기 힘든 스님들의 감로법문을 매주 안방으로 전해주는 소중한 교과서다.

신문에 난 소식을 보고 직접 법회에 찾아가기도 하고 신문에 소개된 좋은 책을 사서 읽으며 불교와 한층 더 가까워졌다.

"일상생활이 바쁘다보니 미처 물어보지 못한 신문이 한 부 두 부 쌓이기도 하죠. 이럴 땐 일부러라도 하루 정도 시간을 내 신문을 읽습니다. 천천히 신문을 넘겨보면서 눈에 띄는 기사나 필요한 정보도 스크랩해 둡니다. 스크랩 한 것만이 바로 짚짚이 시간 내 읽다보면 '이런 정보도 있구나' '이런 가르침도 있구나' 하고 알게 되지요."

감명 깊게 읽은 스님 법문이나 봉사활동에 필요한 차 관련 자료, 눈에 띄는 법회 정보 등은 꼭 올려둔다는 이씨가 매주 빼놓지 않고 읽는 것은 불자들의 신행수기를 소개하는 '부처님 감사합니다' 코너. 다른 이들이 수행을 통해 어려움을 이겨내고 불법을 배워가는 모습을 보다 보면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기 때문이다.

"신행수기에 나오는 많은 불자들의 정진 모습을 통해 늘 부족한 제 자신을 되 돌아보게 됩니다. 저도 언젠가는 제 수행 생활을 정리해 신행수기 공모에 응모해 볼 생각이예요."

최근 3년 결사의 관음기도에 입재한 이씨는 수행과 더불어 봉사활동에도 열심이다. 바로 수행할 때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고 건강에도 좋은 차를 알려주는 일이다.

여러 도반들과 함께 성신여대 대학원 차생활 예방학과를 수료한 후 다례교육 봉사활동을 나가고 있다. 현재 사찰은 물론 은석초등학교와 서울대 불교학생회에서도 무료 다례교육을 펼치고 있다.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제 주위에도 신문 구독을 중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 그분들에게 '자신에게 보시하는 마음으로 꼭 신문을 보라'고 권합니다. 사찰 불사에 보시하는 것은 아껴줘야지 않으면서 자기 공부를 위해 신문 한 부 구독하는 것을 아껴줘서야 되겠어요? 부처님 가르침과 알짜 정보 가득한 '현대불교'를 읽다보면 구독료 이상의 소중한 보물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金光植先生の
漢文書堂
1巻

● 김광식선생의 한문학습 노하우를 여러분께 모두다 전수해드립니다.

머리에 쓱쓱!!
한문교육 40년 경험과 최고의 결과를 후학(後學)들이 부담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漢文書堂> 12권에 실었습니다. 속담에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로 "사람도 공부를 하면 위인(偉人)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漢文書堂>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을 드렸으면 합니다.

불자들에게 희소식!!
명광문화원 김광식 선생의 "한문서당"은 많은 스님들과 불자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금년 연말(12월말)까지 한정 특별판매를 단행합니다.
정가 180,000원을 150,000원으로 모십니다.
"한문서당"을 통해 깊은 학문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12개월(카드) 할부도 가능!!

주문처
현대불교신문 "마하몰" http://mahamall.co.kr
TEL. 02)732-1520
명광문화원 홈페이지 http://mkmunhwa.com
TEL. 043)222-2257

한문이 이제 쉬어집니다.

- ◇ 현대불교신문!
<한문서당>에서는 딱딱한 사전적 풀이대신 쉬운 언어로 한자를 풀이하고 있다. 한자는 형성과정을 이해하면 저절로 외워진다.
- ◇ 청청 투데이!
체계적인 한문교육이란 무엇이며 예절과 효문화교육에서도 상세히 알려준다.
- ◇ 동양일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한문에 쑥 한몫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책이다.
- ◇ 중부매일!
한문교육 40년 경험과 최고의 경험과 최고의 결과를 후학들이 부담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엮은 책이다.
- ◇ 이원중 중북도지사!
한문책으로서 우리 도를 빛낸 또 하나의 쾌거이다.
- ◇ 김중호 전 내부부장관!
한문문화권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시점에서 지름길을 제시해 주어 경제와 문화가 한층 발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 법주사 도공 스님!
한문과 불교문화는 밀접한 관계다. 불자들의 필독을 권한다.

영어를 모르면 세계의 고아!
한문을 모르면 아시아의 고아!
17억 한문 문화권에 당연한 도전!
한문을 알면 지구의 반을 정복한다!